

생명·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1. 5.

전남농업정보

VOL 16

주간 기상전망

농산물 재배동향

2014 가을배추·무, 콩 생산량(전국)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쌀, 양념채소, 과채, 축산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입 동향

'14년 11월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대비
5.1%증가한 75.3억불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자동착유시스템' 설치 농가 65% 노동력 절감
돈 버는 산업곤충 정보가 한 권에 '쏙'

정책동향

민선 6기 이낙연 호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달린다.

전남도, 완전개방 대응 쌀산업발전대책 마련

사업신청 안내

2015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오를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농산물 재배 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4 가을배추·무, 콩 생산량(전국)

- 가을배추 생산량 1,698천톤, 전년대비 10.6% 상승
- 가을무 생산량 482천톤, 전년대비 24.5% 하락
- 콩 생산량 139천톤, 전년대비 9.6%하락

❁ 농축산물 가공·출하 및 가격동향(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공식품** : 간장(샘표) 4,757원/ℓ, 고추장(대상) 581원/100g,
김치(대상) 6,284원/kg, 두부(풀무원) 1,074원/100g
- 전년대비 간장 1.6% 상승, 고추장 44.1% 하락, 김치 6.8% 상승,
두부 2.6% 하락
- ▶ **식량작물** : 쌀 41,400원/20kg(전년보다 하락)
- 연말연시 식용소비량 감소전망으로 가격 약세 전망
- ▶ **엽근채소** : 배추 380/1kg, 무 450원/1kg(전년보다 하락)
- 배추는 소비둔화 및 품질저하로 가격하향세 지속 전망
- 무는 제주 월동무 산지 출하조절로 강보합세 전망

▶ **양념채소** : 양파 520천원/1kg, 대파 1,380원/1kg(전년보다 상승)

- 양파는 저장물량 등 공급이 원활하여 약보합세 전망
- 대파 공급량은 충분하며 큰 시세변동 없는 보합세 전망

▶ **과 일 류** : 사과 54,600원/15kg, 배 33,400원/15kg(전년보다 하락)

- 딸기·감귤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어 약보합세 전망

▶ **축 산 물** : 돼지고기 1,838원/100g(전년보다 상승)

- 구제역 발생지역 증가로 소비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가격 하락 전망

❁ 농수산물식품 수입 동향(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 '14. 11월까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75.3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

❁ 농업기술정보(농촌진흥청)

▶ '자동착유시스템' 설치 농가 65% 노동력 절감

- 농촌진흥청, 농가 대상 만족도와 도입 희망 여부 조사

▶ 돈 버는 산업곤충 정보가 한 권에 '쑥'

- 농촌진흥청, 「산업곤충도감」 발간

❁ 정책동향(전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민선 6기 이낙연 호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달린다.

▶ 전남도, 완전개방 대응 쌀산업 발전대책 마련

▶ 전남도, 후계농·귀농인 정책자금 1% 저리 융자지원 추진

▶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 및 연금 수령액 증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미국의 에탄올 재고량, 사상최대 생산 후 2개월래 최대치 기록
- ▶ 해외 곡물시장 상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가격, 기술적 매도 및 연말포지션에 따른 적은 거래물량으로 하락
 - 옥수수, 농가들의 옥수수현물을 통한 기술적 매도세로 하락
 - 대두, 이상적인 남미의 작황으로 최대수확 및 세계밀 재고량 증가 전망으로 하락

❁ 고소득 농업사례(전남농업기술원)

- ▶ 국내 최초 ‘흑울금 발효액’ 제품 출시
 - 울금의 쓴맛은 줄이고 커큐민 흡수율 높인 제품 개발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 기 간 / 장 소 : '15. 1. 16 까지 / 읍면사무소
 - 지 원 대 상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 등)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결산서로 대체 가능)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법인
 - 지 원 단 가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50%)
 - 사 업 내 용 : 경영·대외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개선, 브랜드 개발, 마케팅, 기술개발 등 컨설팅
- ▶ 2015년 시설원예사업 신청
 - 기 간 / 장 소 : '15. 1. 20까지 / 읍면사무소
 - 지 원 대 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대 상 사 업 : 시설원예품질개선, 농업에너지품질개선, 첨단온실

▶ 2015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지원 사업

- 기 간 / 장 소 : '15. 1. 2 ~ '15. 1. 30 까지 / 읍면사무소
- 지 원 대 상 : 친환경 축산물인증 및 HACCP 지정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 대 상 사 업 :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운동장 구입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기타 친환경 축산에 필요한 정책사업 지원
- 지 원 내 용 : 연리 1%, 시설·운영자금

▶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 기 간 / 장 소 : '15. 1. 31 까지 / 읍면사무소
- 지 원 대 상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대 상 사 업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2015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 신청

- 기 한 / 장 소 : '15. 1. 2 ~ '15. 2. 11 까지 / 읍면사무소
- 지 원 대 상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대 상 사 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지 원 내 용 : 연리 1%, 시설·운영자금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1. 5.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1/5)	전주 (12/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41,400	41,400	41,580	43,600	40,167	↓ 5.0	↑ 3.1
	콩(백태)	35kg	138,000	138,000	140,000	156,600	185,200	↓ 11.9	↓ 25.5
	고구마(밤)	10kg	21,400	21,000	20,080	18,100	24,000	↑ 18.2	↓ 10.8
	감자(수미)	20kg	21,600	21,400	20,800	19,950	30,913	↑ 8.3	↓ 30.1
채소류	배추(가을)	1kg	380	380	390	453	-	↓ 16.1	-
	양배추	10kg	5,000	5,000	4,792	5,200	7,787	↓ 3.8	↓ 35.8
	오이(다다기계통)	10kg	60,667	55,667	49,467	53,250	51,972	↑ 13.9	↑ 16.7
	애호박	8kg	25,200	26,600	21,680	23,500	24,393	↑ 7.2	↑ 3.3
	토마토	10kg	25,000	23,800	23,800	33,700	32,490	↓ 25.8	↓ 23.1
	무(월동)	1kg	450	440	-	445	-	↑ 1.1	-
	당근	20kg	16,200	16,200	17,080	20,000	22,293	↓ 19.0	↓ 27.3
	건고추(화건)	60kg	830,000	830,000	855,200	680,000	830,667	↑ 22.1	↓ 0.1
	풋고추	10kg	81,800	71,000	65,080	46,150	51,103	↑ 77.2	↑ 60.1
	마늘(난지)	10kg	33,800	33,800	33,800	27,400	34,617	↑ 23.4	↓ 2.4
	양파	1kg	520	520	520	825	854	↓ 37.0	↓ 39.1
	대파	1kg	1,380	1,400	1,336	1,235	1,746	↑ 11.7	↓ 21.0
	파프리카	5kg	30,400	31,000	20,720	25,500	30,553	↑ 19.2	↓ 0.5
	방울토마토	5kg	18,000	15,600	12,320	20,400	23,073	↓ 11.8	↓ 22.0
	딸기	1kg	14,600	14,600	-	13,400	-	↑ 9.0	-
과일류	사과(후지)	15kg	54,600	54,200	54,280	75,100	74,660	↓ 27.3	↓ 26.9
	배(신고)	15kg	33,400	34,000	33,600	41,700	42,967	↓ 19.9	↓ 22.3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1/5)	전주 (12/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4,000	514,000	514,000	534,000	561,000	↓ 3.7	↓ 8.4
	들깨	45kg	430,000	430,000	413,800	436,000	366,867	↓ 1.4	↑ 17.2
	새송이버섯	2kg	8,200	8,000	6,920	9,400	-	↓ 12.8	-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565	6,614	6,685	5,936	6,665	↑ 10.6	↓ 1.5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38	1,922	2,049	1,590	1,624	↑ 15.6	↑ 13.2
	닭고기	1kg	5,045	5,269	5,227	6,172	5,258	↓ 18.3	↓ 4.1
	계란(특란)	10개	1,918	1,999	2,011	1,843	1,796	↑ 4.1	↑ 6.8
	우유	1리터	2,548	2,548	2,546	2,537	2,252	↑ 0.4	↑ 13.1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1.5.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825 천원	4,605 천원	3,772 천원	↑ 4.8	↑ 27.9
	거세	5,243 "	4,997 "	5,332 "	↑ 4.9	↓ 1.7
송아지 (6~7월)	암	1,937 "	1,724 "	1,197 "	↑ 12.4	↑ 61.8
	수	2,491 "	2,294 "	1,988 "	↑ 8.6	↑ 25.3
육우(600Kg)		3,538 "	3,277 "	2,577 "	↑ 8.0	↑ 37.3
젖소수송아지(7일령)		39 "	39 "	15 "	-	↑ 160.0
돼지(110kg)		370 "	380 "	309 "	↓ 2.6	↑ 19.7
육계(원/kg)		1,905 원	1,831 원	2,098 원	↑ 4.0	↓ 9.2
계란(원/특란10개)		1,307 원	1,353 원	1,408 원	↓ 3.4	↓ 7.2
오리(원/kg)		2,666 원	2,666 원	1,960 원	-	↑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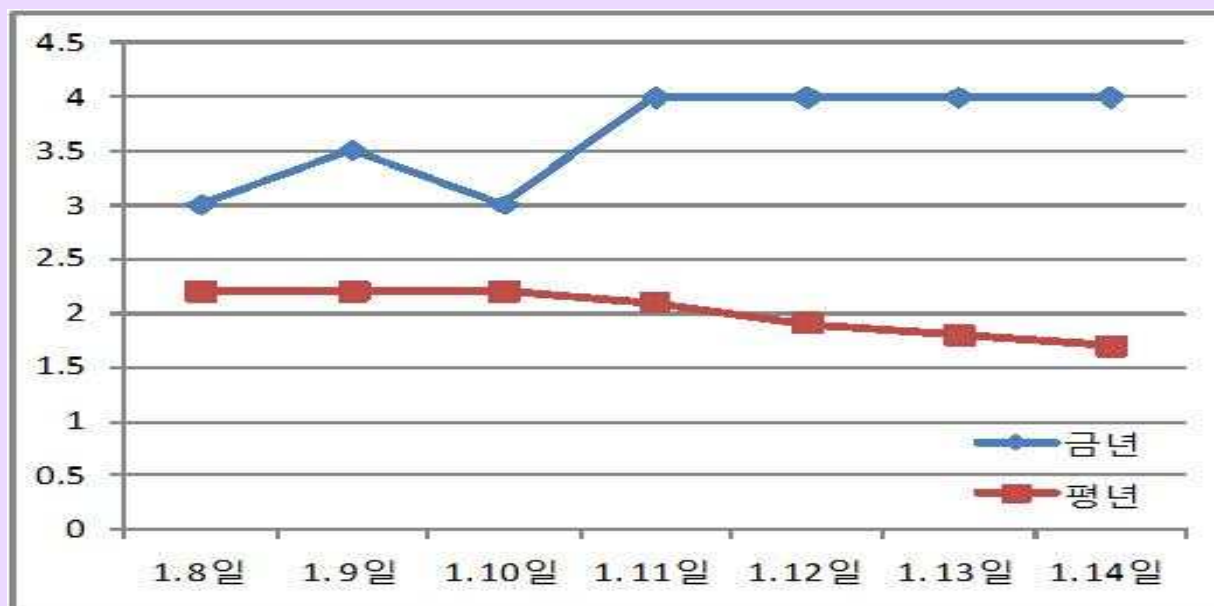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3.6	2.0	1.6	5.9	6.3	-0.4	-1.4	-1.2	-0.3	1.1
1. 8(목)	3	2.2	0.8	4	6.5	-2.5	-2	-1.1	-0.9	1.1
1. 9(금)	3.5	2.2	1.3	5	6.6	-1.6	-2	-1	-1	1.3
1. 10(토)	3	2.2	0.8	5	6.5	-1.5	-1	-1.1	0.1	1.1
1. 11(일)	4	2.1	1.9	7	6.4	0.6	-1	-1.1	0.1	1.1
1. 12(월)	4	1.9	2.1	7	6.1	0.9	-1	-1	0	1.1
1. 13(화)	4	1.8	2.2	7	6.1	0.9	-1	-1.4	0.4	1.2
1. 14(수)	4	1.7	2.3	6	5.9	0.1	-2	-1.4	-0.6	1.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2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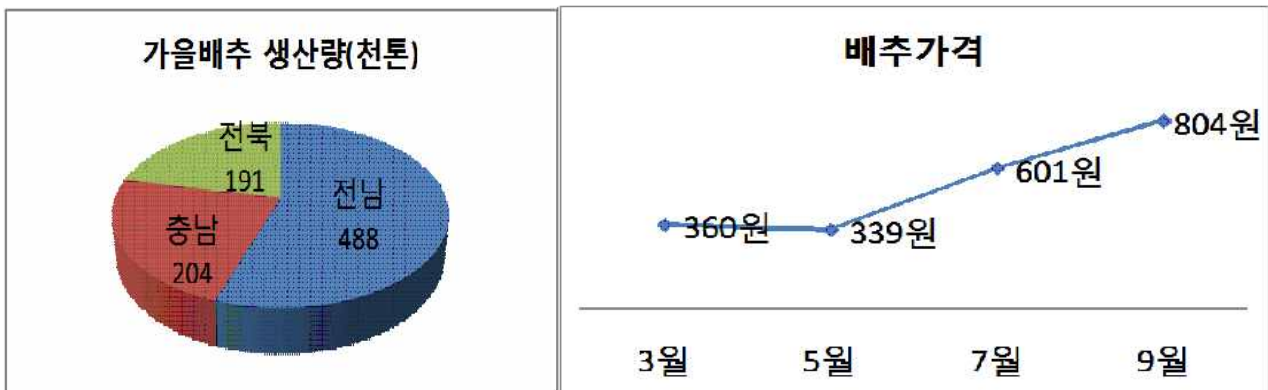
2. 농산물 재배 동향

2014 가을배추 · 무, 콩 생산량

□ 가을배추

- [생산량] 1,698천 톤, 전년(1,536천 톤)대비 10.6% ↑
 - (원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재배면적 소폭 증가(0.9%), 작황호조에 따른 10a당 생산량 증가(9.6%)
 - (지역별) 전남(488천 톤) > 충남(204천 톤) > 전북(191천 톤)
- [재배면적] 15,233ha, 전년(15,095ha)대비 0.9% ↑
 - (원인)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 2014년 배추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월 별) : (3월) 360 → (5월) 339 → (7월) 601 → (9월) 804원



- [10a당 생산량] 11,150kg, 전년(10,174kg)대비 9.6% ↑
 - (원인) 배추 정식기(8.하순~9.하순)에 일조시간 등 기상여건 양호하여 초기 생육원활, 결구시기(10.~11.) 적절한 기온·강수량으로 전반적인 생육 양호

□ 가을무

○ [생산량] 482천 톤, 전년(639천 톤)대비 24.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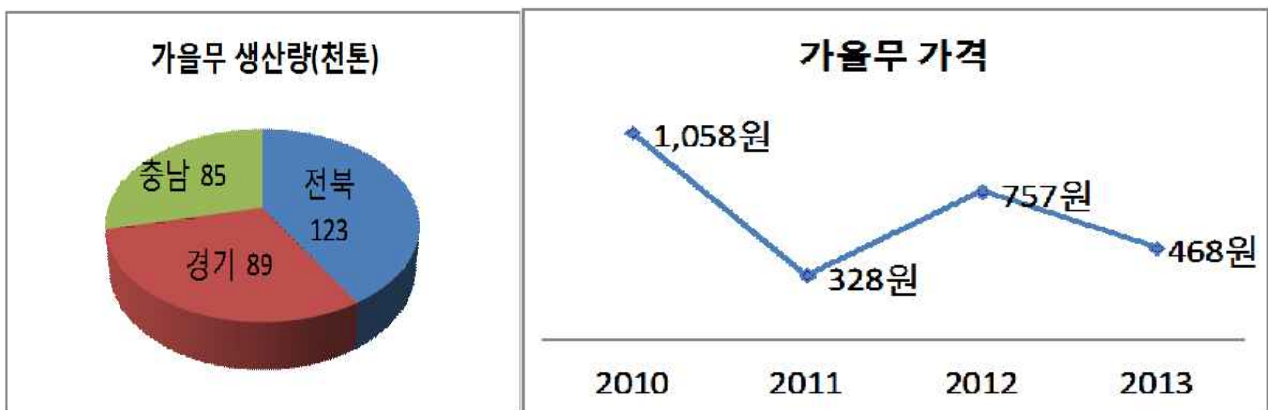
- (원인) 일조시간 등 기상여건 호조로 10a당 생산량이 증가(3.4%) 하였으나, 전년의가격 약세가 이어지면서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감소(27.0%)

- (지역별) 전북(123천 톤) > 경기(89천 톤) > 충남(85천 톤)

○ [재배면적] 5,498ha, 전년(7,532ha)대비 27.0% ↓

- (원인)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무의 소비부진과 겹쳐 약세가 이어지면서 가을무 재배면적 큰 폭으로 감소

※ 가을무 가격(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11~12월 평균): (2010)1,058 → (2011)328 → (2012)757 → (2013)468원(-289원, -38.2%)



○ [10a당 생산량] 8,771kg, 전년(8,483kg)대비 3.4% ↑

- (원인) 비대기(10~11월)에 강수량, 기온 등 기상여건 좋아 전년 대비 개당 중량 증가

□ 콩

○ [생산량] 139천 톤, 전년(154천 톤)대비 9.6% ↓

- (지역별) 경북(26천 톤) > 충북(23천 톤) > 전남(16천 톤)

○ [재배면적] 74,652ha, 전년(80,031ha)대비 6.7% ↓

- (원인)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 높은 특용작물 등 대체작물(참깨, 들깨 등)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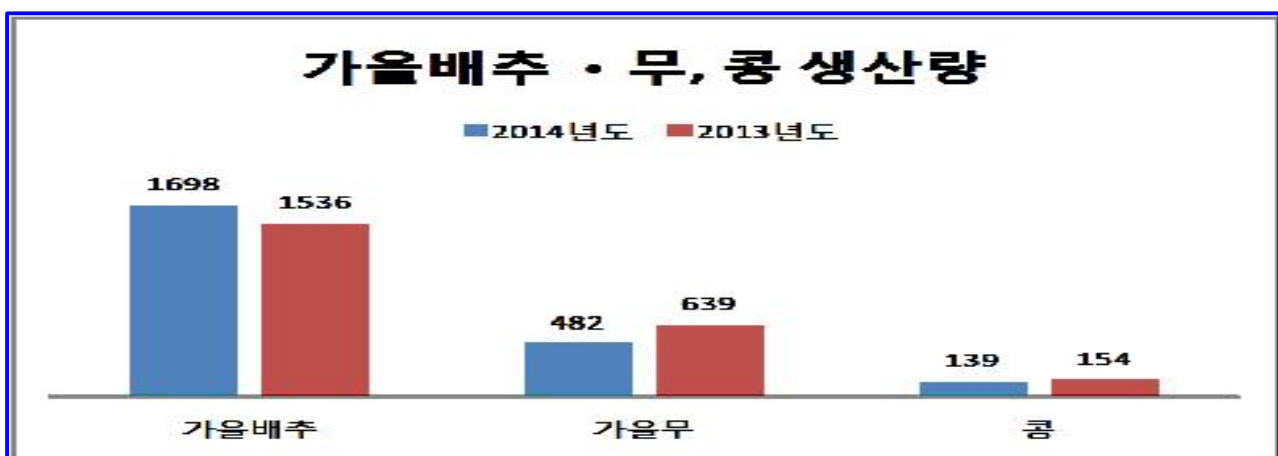
※ 콩 가격(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상품 1kg, 도매, 11~12월 평균)
: (2011)5,450 → (2012)6,058 → (2013)4,894원(-1,164원, -19.2%)



○ [10a당 생산량] 187kg, 전년(193kg)대비 3.1% ↓

- (원인) 꽃이 피는 시기(7~8월)에 잦은 비로 저온 피해와 일조시간 부족 등 기상여건 악화로 생육 부진

< 2013/14년도 가을배추·무, 콩 생산량 >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동향(14.12.29.일자)

3.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배추, 무

- (배추) 1월 가격 배추1kg에 380원
 - 배추는 소비둔화 및 품질저하로 가격하향세 지속 전망
- (무) 1월 가격 1kg에 450원
 - 제주 월동무 산지 출하조절로 강보합세 전망

양념채소 : 양파, 대파

- (양파) 1월 가격 1kg에 520원
 - 양파는 저장물량 등 공급이 원활하여 약보합세 전망
- (대파) 1월 가격 1kg에 1,380원
 - 대파 공급량은 충분하며 큰 시세변동 없는 보합세 전망

과 일 : 사과, 배, 감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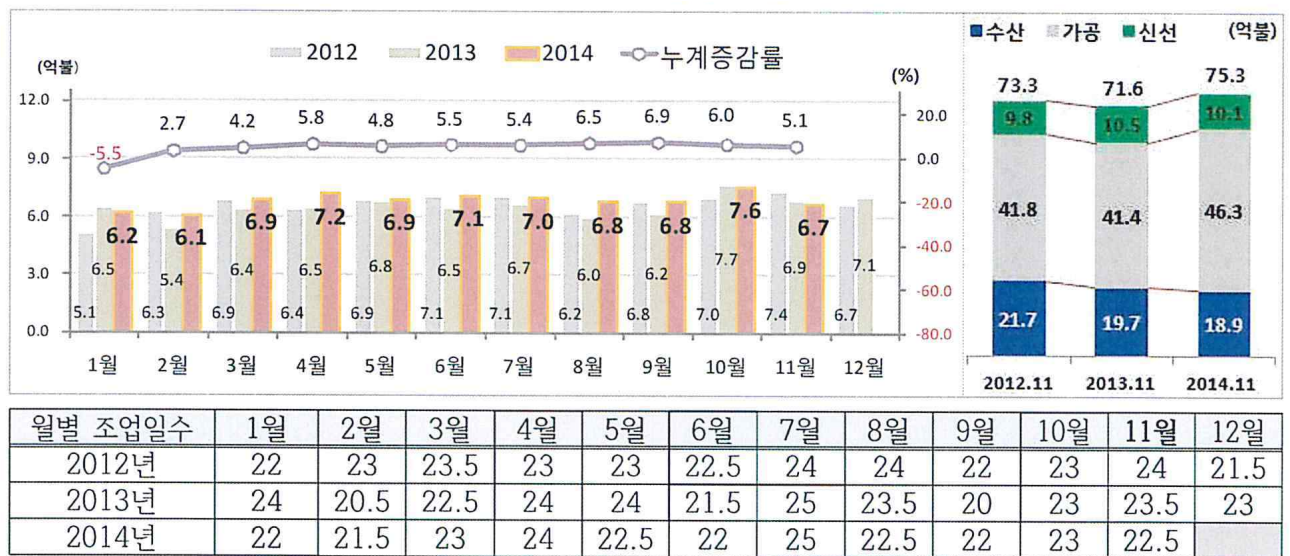
- (사과) 1월 가격 15kg에 54,600원
 - 연말을 맞아 제철과일인 딸기·감귤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어 약보합세 전망
- (배) 1월 가격 15kg에 33,400원
 - 배는 저장량 많아 신고 가격은 당분간 전년보다 낮은 약세가 지속될 전망
- (감귤) 1월 가격 10kg에 18,400원
 - 간식용 가정소비 및 요식업소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량이 충분하여 보합세 전망

4. 농림수산물 수출동향(전국)

총 관

- '14.11월까지 농림수산물 수출은 75.3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
- 11월까지 농림축산식품(수산물 제외)은 56.4억불 수출로 8.6% 증가

< '12년~'14.11월별 수출추이 >



*조업일수계산법 : 평일(1일), 토요일(0.5일), 공휴일 제외

- (부류별) 신선농식품 $\Delta 4.0\%$ 감소, 가공식품 11.8% 증가, 수산물 $\Delta 4.1\%$ 감소
 - (신선) 단감(10.6백만\$, 15%), 딸기(26.6, 10), 사과(4.9, $\Delta 7$), 김치(77.2, $\Delta 7$)
 - (가공) 고추장(26.8백만\$, 20%), 비스킷(139.2, 16), 마요네즈(28.8, $\Delta 17$), 설탕(157.3, $\Delta 15$)
 - (수산물) 김(250.5백만\$, 9%), 참치(525.7, 1) 넙치(57.6, $\Delta 20$), 오징어(110.7, $\Delta 15$)
- (국가별) 미국(9.0%), 홍콩(7.2%), 일본(0.4%), EU(11.1%) 등은 수출증가, 중국($\Delta 1.6\%$), 러시아($\Delta 4.4\%$) 등은 수출 감소

□ 11월 당월 현재 국가전체 수출은 470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9% 감소¹⁾

- 미국은 연말 소비증가 및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증가로 수출호조세
- 반면, 유가영향으로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수출이 미진하며 ASEAN,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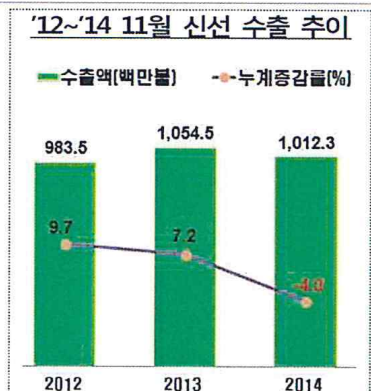
품 목 별

□ [신선농식품] 단감(15.3%), 딸기(10.1%), 인삼(6.9%) 등은 증가한 반면, 화훼류(△33.0%), 사과(△7.3%), 김치(△6.8%) 등은 감소

< 11월 신선농식품 주요품목 수출현황 >

(단위:백만\$, 천톤, %)

구 분	'13년	2013.11월		2014.11월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신 선>	1,180.5	329.8	1,054.5	385.5	1,012.3	16.9	△4.0
(+) 단감	10.4	6.7	9.2	7.0	10.6	3.7	15.3
(+) 딸기	29.8	2.6	24.2	3.1	26.6	17.5	10.1
(+) 인삼	174.9	4.4	145.9	5.2	156.0	19.1	6.9
(-) 화훼류	61.2	6.6	50.6	4.5	33.9	△31.7	△33.0
(-) 사과	7.4	2.0	5.2	2.0	4.9	△1.0	△7.3
(-) 김치	89.3	23.7	82.8	22.6	77.2	△4.7	△6.8



○ [단감] 작황호조로 전년대비 수출물량이 증가하였으며, 타국산 대비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홍콩에서의 수요 증가

* 국가별 : 필리핀(1.5백만\$, 201%), 홍콩(1.4, 93), 캐나다(1.1, 13), 태국(0.5, 49), 말레이시아(3.8, △12)

○ [딸기] 미국산 딸기와의 경쟁 속에서 높은 당도와 달콤한 향을 강조한 동남아지역 홍보·판촉과 국내 딸기밭 체험행사 등을 체험한 동남아 관광객들로부터 한국산 딸기의 인지도가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

1) 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 「2014년 11월 수출입동향」

* 국가별 : 싱가포르(8.7백만\$, 17%), 말레이시아(3.1, 13), 태국(2.1, 3),
홍콩(8.9, △1), 인도네시아(0.2, △15)

○ [인삼] 홍콩은 최근 중국 원삼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한국삼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1회용으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홍삼드링크 수요 증가

* 국가별 : 홍콩(36.7백만\$, 10%), 일본(33.0, 24), 대만(20.3, 21), 미국
(12.5, 9), 중국(33.2, △7)

○ [사과] 일본 사과의 생산량 증가로 주요 수출국인 대만 내 일본산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엔저에 따른 일본산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한국산 사과의 수요 감소

* 국가별 : 대만(1,772천\$, △28%), 러시아(508, △25), 홍콩(1,105, 43),
싱가포르(881, 39), 미국(46, 65)

○ [김치] 주 수출국인 일본 내 가격경쟁력을 갖춘 현지 생산물량 증가로 수출 감소세

* 국가별 : 일본(52.4백만\$, △15%), 미국(4.4, △4), 홍콩(4.4, 35), 대만
(2.7, 21), 호주(1.9, 29)

○ [화훼류] 장미는 전북 및 경남지역에 우기가 지속되어 품위 저하, 국화는 일본(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내 현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저가격 공급으로 한국산 국화의 가격경쟁력 약화되며 수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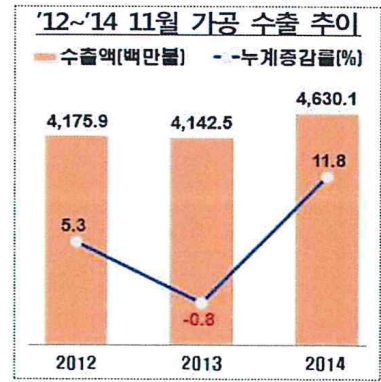
* 국가별 : 일본(24.6백만\$, △37%), 중국(3.6, △44), 미국(2.3, 27), 러시아(0.2, 16)

□ [가공식품] 고추장(20.4%), 비스킷(16.3%), 제3맥주(1.0%) 등은 증가한 반면, 마요네즈(△16.7%), 설탕(△15.4%), 커피조제품(△0.6%) 등은 감소

< 11월 가공식품 주요품목 수출현황 >

(단위:백만\$, 천톤, %)

구 분	'13년	2013.11월		2014.11월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가공>	4,544.1	2,730.4	4,142.5	2,919.9	4,630.1	6.9	11.8
(+) 고추장	24.3	9.6	22.3	10.8	26.8	12.5	20.4
(+) 비스킷	132.5	18.9	119.6	21.0	139.2	11.3	16.3
(+) 제3맥주	139.8	182.2	129.3	187.3	130.6	2.8	1.0
(-) 마요네즈	36.6	14.5	34.6	13.3	28.8	△8.2	△16.7
(-) 설탕	203.1	309.9	186.0	278.4	157.3	△10.2	△15.4
(-) 커피조제품	306.1	73.3	276.7	68.8	274.9	△6.2	△0.6



○ [고추장] 미국은 핫소스시장의 성장과 한식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류의 높은 인기로 한식당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1선도시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세

* 국가별 : 미국(8.6백만\$, 3%), 중국(3.9, 100), 캐나다(1.5, 10), 호주(1.1, 8), 일본(3.2, △7)

○ [비스킷] 미국의 스낵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글루텐프리 식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과 및 곡류조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유아용 시장 성장으로 유아용 과자 수요증가세

* 국가별 : 중국(43.9백만\$, 31%), 미국(22.7, 7), 일본(12.0, 2), 홍콩(9.8, △12), 러시아(5.9, △8)

○ [제3맥주] 일본산 제3맥주와의 경쟁심화로 수출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일본 내 저도주 선호 소비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출증가세 지속

* 국가별 : 일본(130,413천\$, 1%), 호주(88, 110), 미국(30, 30)

○ [마요네즈] 주 수출국인 러시아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수입식품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마요네즈 성분에 대한 검역 강화및 수입·현지생산 제품과의 경쟁심화로 중국으로 수출 감소

* 국가별 : 러시아(23.3백만\$, △10%), 중국(1.9, △63), 몽골(0.7, △21),

호주(1.0, 12), 홍콩(0.2, 25)

○ [설탕] 전년대비 내수용 설탕수요(담금주, 효소 등)가 증가 및 원당 가격하락세로 수출 감소

* 국가별 : 중국(95.0백만\$, △19%), 홍콩(47.7, △8), 베트남(3.2, △11), 인도네시아(4.5, 5), 미국(0.4,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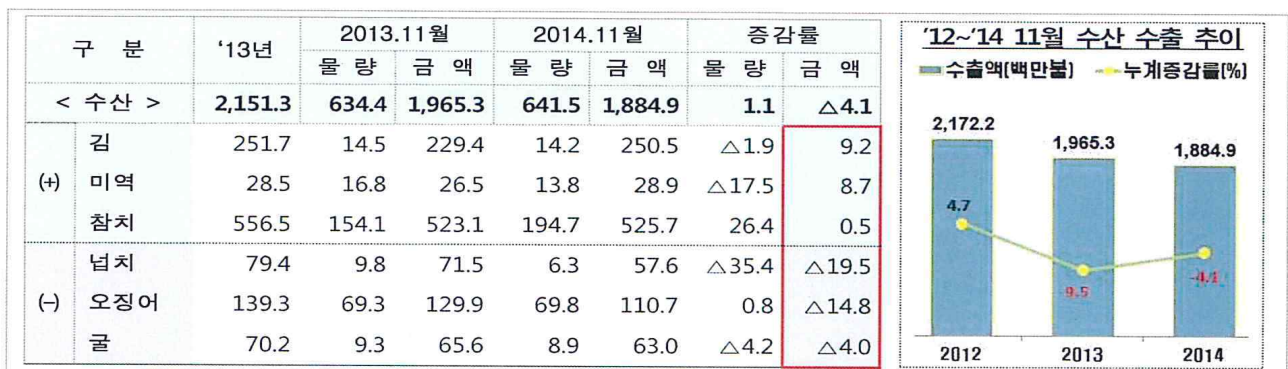
○ [커피조제품] 가정용 외에 커피전문점·외식업체 등 업소용 수요의 확대로 중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주 수출국인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로 전체 수출은 감소

* 국가별 : 러시아(39.8백만\$, △12%), 인도네시아(33.2, △16), 태국(10.4, △11), 중국(49.9, 5), 대만(13.0, 26)

□ [수산물] 김(9.2%), 미역(8.7%), 참치(0.5%) 등은 증가한 반면, 넙치(△19.5%), 오징어(△14.8%), 굴(△4.0%) 등은 감소

< 11월 수산물 주요품목 수출현황 >

(단위:백만\$, 천톤, %)



○ [김] 미국은 김이 팝콘 또는 감자칩을 대체할 수 있는 웰빙스낵으로 인식되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경, 상해 등 대도시 위주의 소비에서 내륙도시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세

* 국가별 : 미국(64.2백만\$, 5%), 일본(55.5, 3), 중국(41.2, 37), 캐나다(10.1, 18), 태국(29.4, △12)

○ [미역] 주 수출국인 일본 내 미역 생산 감소 및 중국산 안정성 문제로 한국산 수요 증가

* 국가별 : 일본(15.3백만\$, 11%), 미국(4.8, 3), 호주(0.8, 17), 캐나다(0.6, 3), 중국(2.6, △29)

○ [참치] 주 수출품인 가공용 참치의 국제거래가격이 '14년 3월 최저가 기록 후 일부 반등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내 눈다랑어·필렛 등 횡감용 수요가 증가하며 수출증가세

* 국가별 : 에콰도르(34.4백만\$, 253%), 스페인(24.2, 73%), 프랑스(22.4, 93), 일본(225.9, △6), 태국(78.8, △45)

○ [넙치] 주 수출국인 일본 내 넙치 공급량 증가로 일본산 가격이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심화로 수출감소

* 국가별 : 일본(26.8백만\$, △22%), 중국(16.5, △36), 베트남(0.2, △66), 미국(10.6, 18), 대만(0.5, 53)

○ [오징어] 저가의 북한·칠레산 오징어의 중국 내 수입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세

* 국가별 : 중국(37.5백만\$, △46%), 일본(2.3, △30), 베트남(17.0, 24), 뉴질랜드(14.6, 8), 미국(13.4, 16)

○ [굴] 홍콩 등 동남아지역은 저가의 중국산 건조굴과의 경쟁으로, 미국은 기존 물량 재고소진으로 수출 감소

* 국가별 : 미국(13.0백만\$, △10%), 홍콩(8.0, △29), 싱가포르(1.7, △33), 일본(29.5, 3), 캐나다(0.8, 29)

■ 국 가 별

□ 미국(9.0%), 홍콩(7.2%), 일본(0.4%), EU(11.1%) 등은 수출증가, 중국(△1.6%), 러시아(△4.4%) 등은 수출 감소

<14년 11월 국가별 농림수산물 수출 현황>

(단위:백만 \$, %)

국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ASEAN	EU
수출액	1,917.3	1,179.9	733.8	231.0	361.3	233.4	1,214.2	402.3
증가율	0.4	△1.6	9.0	△4.4	7.2	2.8	0.0	11.1
(비중)	25.5	15.7	9.7	3.1	4.8	3.1	16.1	5.3

○ [홍콩] 저가인 중국산 배에 비해 한국산 배가 안전하다는 인식 증가로 한국산 배의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태국산 김에 비해 바삭하고 풍미가 강한 한국산 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며 김 수출 증가세

* 주요 수출품목 : 홍삼(29.4백만\$, 1%), 라면(12.2, 13), 김(8.0, 23), 유자차(5.1, 6), 김치(4.4,35), 배(1.2, 150), 설탕(47.7, △9), 맥주(29.4, △1), 딸기(8.9, △1)

○ [ASEAN] 인도네시아는 신규바이어에 의한 감귤 수입재개 및 대형유통업체 판촉을 통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산 신규라면(불닭, 치즈라면 등)이 현지 소비자들로 인기를 얻으며 수출증가세. 베트남은 판촉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과실류 수출이 지속 증가세이며, 베트남 주점 및 일반식당에서 한국 주류를 신규판매로 주류 수출증가세. 태국은 한국산 딸기출하 시기에 맞춰 대형유통업체 판촉 및 지하철·TV광고 등을 통한 홍보로 딸기 수출 증가세

* 주요 수출품목 : 껌(95.9백만\$, 16%), 과당(36.1, 34), 라면(28.2, 16), 오징어(23.9, 25), 딸기(14.2, 13), 조제분유(7.1, 9), 참치(101.6, △38), 커피조제품(68.4, △10)

* 주요 국가별 : 베트남(397.3백만\$, 2%), 인도네시아(177.4, 13), 필리핀(142.7, 9), 태국(199.5, △22), 싱가포르(107.8, △1)

○ [일본] 홍삼드링크 수요 증가로 인삼, 저도주 소비기조로 제3맥주·가향주(도수가 낮은 소주에 향을 첨가한 술) 등의 수요가 증가하며 일부 가

공농식품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저 지속세로 인해 파프리카, 화훼류 등 신선농식품 수출은 감소세

* 주요 수출품목 : 제3맥주(130.4백만\$, 1%), 김(55.5, 3), 굴(29.5, 3), 리큐르(11.8, 1,948), 인삼음료(8.0, 29), 참치(225.9, △6), 파프리카(72.4, △5), 백합(10.0, △40)

○ [중국] 커피전문점 및 외식업체 등의 진출증가로 가정용 외 업소용수요가 확대되며 커피조제품과 신규제품 런칭 및 대형유통업체 판촉 행사로 맥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삼은 기존 재고 물량 소진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

* 주요 수출품목 : 조제분유(68.2백만\$, 35%), 커피조제품(49.9, 5), 비스킷(43.9, 31), 김(41.2, 37), 과즙음료(21.5, 20), 유자차(20.1, 12), 설탕(95.0, △19), 오징어(37.5, △46), 라면(31.8, △8)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14.12.31일자)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자동착유시스템’ 설치 농가 65% 노동력 절감

— 농촌진흥청, 농가 대상 만족도와 도입 희망 여부 조사 —

우유를 자동으로 짜주는 ‘자동착유시스템(AMS)²⁾’을 설치한 농가 중 65%는 ‘노동력 부담을 덜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스템은 로봇착유시스템으로도 불리며, 노동력은 덜고 산유량은 늘리면서 정밀한 젖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스템 운용과 비용 부담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고려대학교, 한경대학교와 함께 자동착유시스템을 설치한 농가 20곳과 설치하지 않은 농가 80곳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방식으로 만족도와 설치 희망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농가의 55%는 만족, 35%는 보통, 10%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노동력 절감에 대해서는 65%가 만족, 10%가 불만족이라고 답했으며, 유량 증가에 대해서는 6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동기로는 노동력 절감(65%), 업체 홍보, 직원 고용 등 기타(20%), 체험목장 전환을 위한 전시효과(10%), 산유량 증가(5%) 등을 꼽았다.

운영상 어려운 점은 유두 탐지 지연 등 기계 실수(40%), 자동착유시스템 유지와 관리(20%), 미적응 개체 관리(15%) 순으로 나타났다.

2) Auto Milking System

자동착유시스템을 설치한 후 주요 도태 원인은 부적합 유두 배열(55%), 유방염(20%) 순이었다. 유지 보수 계약 체결 관련 질문에는 90%가 업체와 계약해 운영 중이며, 한 해에 500만원~7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앞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에 ‘우사 환경이 도입에 적합한지’, ‘보유축의 유두배열이 적합한지’,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고려하라.’라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착유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일반 낙농가 80곳에 대한 설문도 함께 실시했다. 설치하지 않은 농가의 31%는 ‘앞으로 자동착유시스템 도입을 희망한다.’라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노동력 절감(85%)’을 꼽았다. 또, 자동착유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부지 확보(54%), 국산화 기계 개발(18%), 시설 장비 보조와 저리 융자(1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자동착유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농가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고,

이미 도입한 농가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장비를 공급하고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와 함께 자동착유시스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 돈 버는 산업곤충 정보가 한 권에 ‘쑥’

— 농촌진흥청, 「산업곤충도감」 발간 —

어떤 곤충이 돈 버는 산업곤충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책이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유용 곤충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산업화 기초 지식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곤충도감」을 발간했다.

산업곤충에 대한 사육기준과 규격을 다룬 책은 발간돼 왔으나 산업곤충의 용도와 관련 종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은 없어 필요성이 제시돼 왔다.

이번에 발간한 도감에서는 곤충강 10목 67과 139종, 거미강 2목 5과 8종, 지네강 1목 1과 1종 등 148종의 곤충을 다루고 있다.

이 148종은 △대량 사육을 통해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종 △사육 기술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어 이용 가능성이 높은 종 △대량생산 가능성이 높은 종 △역사적으로 이용 근거가 확실한 종 △실물 거래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종을 선별적으로 다룬 것이다.

도감은 산업곤충의 이해, 쓰임새로 나누어 보는 산업곤충, 부록 등 총 3장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쓰임새로 나눠 보는 산업곤충에서는 △먹거리 식물의 증매쟁이로 쓰는 곤충 △먹거리 식물과 나무 및 가축을 보호해주는 곤충 △유용 물질을 제공해 주는 곤충 △먹거리와 민약(民藥) 및 사료로도 쓰이는 곤충 등 8종류로 분류해 제시했다.

또한, 각 종별로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정보(COI)³⁾를 QR 코드로 이미

3) Cytochrome Oxidase I

지화했고, 유전자 서열의 종내 변이 정도까지 표시해 두었다.

특히, 곤충 사육을 위한 종충의 확보 방법과 곤충의 고유종 여부 확인, 활용 방안 등을 자세히 제시해 곤충 농가와 산업곤충 종사자는 물론, 곤충을 사육하거나 공부하는 이들에게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PDF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출처: 농촌진흥청

6. 정책동향

◆ 민선 6기 이낙연 호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달린다.

- 전남도는 지난 10년간 다져온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 6기에는 “믿음 주는 유기농 1번지 실현”을 위해 유기농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2016년부터 정부 정책전환으로 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기농 시대가 개막되고, 국민소득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먹을거리의 소비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2015년부터 실천 농가의 소득차액 보전을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 시행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간다.
 - 첫째, 전국 최초로 도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 급식에 유기농 쌀을 공급한다. 이는 유기농 쌀 소비촉진은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는 광주,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농자재 비용으로 단지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을 친환경 농가에게 장려금 형태의 직불금으로 전환하고, 유기농에 대해서는 ha당 보조금을 금년 100만원에서 '15년부터는 1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 셋째, 유기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직접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100% 지원(ha당 논 60만원, 밭 120만원) 한다. 현재 국비로 5년간만 지원하던 직불금을 지자체 최초로 유기농가의 소득 차액 보전을 위해 5년 이후에도 道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15년부터 제한기간 없이 계속 지원한다.

- 넷째, 인증수수료 보조율을 금년 80%에서 '15년부터는 90%로 상향 지원한다. 이는 정부에서 인증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잔류농약 성분검사 확대에 따라 실천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 다섯째, 채소, 밭작물, 임산물 등으로 인증품목을 다양화 한다. 그동안 친환경인증 농산물중 쌀의 비중이 높았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증품목을 확대해 나간다.
- 여섯째, 유기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체험의 6차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안전식품을 중요시하고 있는 중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 일곱째, 농협·한살림·생협 등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특히 지역 향토업체인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자연과 미래 등 대도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확대하여 안정적 유통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 아울러,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기술원에 금년 8월 신설한 전담부서를 활용, 표준농법 매뉴얼 개발, 친환경 신기술 및 농자재 자가 제조기술 확대 보급 등을 통하여 저비용 유기농업으로 내실화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 전남도, 완전 개방 대응 쌀산업발전대책 마련

- 전남도는 쌀 시장 완전 개방에 대응하여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6개 분야 43개 사업에 3조원을 투입하는 '전남쌀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 먼저 쌀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산업 정예인력 2만명, 역대 부농 벼 농가 2천호 육성, 수도권 쌀 시장 20% 이상 점유, 쌀 가공식품 선도기업 100개 육성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첫째, 지속 가능한 쌀산업 기반유지와 농가소득 안정장치를 강화한다.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생산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직불금·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확대 지원한다.
- 둘째, 저비용·고효율 쌀 생산구조로 전환한다. '18년까지 들녘별 쌀 경영체 90개소, 쌀 전업농 13천호를 육성하고, 벼 직파재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확대와 함께 농업정보도 신속히 제공한다.
- 셋째, 전남 대표 브랜드 쌀 집중 육성과 홍보를 강화한다. 대표 브랜드 쌀 20개(고품질 쌀 15, 유기농 쌀 5) 육성, 난립된 브랜드 쌀 통합 정비(248개 → 110개), 전남쌀 우수성을 집중 홍보한다.
- 넷째, 최적의 첨단 도정시설 및 유통망을 확충한다. 생산·유통 거점별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10개소를 육성하고, 벼 건조·저장시설 330개소를 확충한다. 또한 수도권에 전남쌀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과 쌀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 다섯째, 전남쌀 소비촉진 및 판매를 확대한다. 대량 소비자 및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촉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유기농쌀 공급 확대, 쌀 소비 및 식생활 교육, 수입쌀 부정 유통 방지 대책 등을 추진한다.
- 여섯째,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및 수출을 촉진한다. 쌀을 이용한 쌀 가공식품 개발·지원으로 쌀 가공식품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업체의 상품개발, 물류비 및 마케팅을 지원한다.
- 아울러, 전남도는 목표달성과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 2015년도에 고품질 쌀 생산 분야 6,661억원, 생산비 절감 분야 428억원, 브랜드 육성 분야 135억원 등 총 7,956억원을 투입한다.
- 전남도 관계자는 “농업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불안을 해소하고, 쌀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쌀산업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남도, 후계농·귀농인 정책자금 1% 저리 융자지원 추진

- 전남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후계농과 귀농인 정책자금을 1% 저리로 활용토록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전남도는 정부정책자금 중 농업종합자금(연 1,700억원 규모)과 산림사업종합자금(연 50억원 규모)에 대해서만 이차차액을 지원(3%의 이자 중 2% 지원)하였으나 후계농과 귀농인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대상(연간 총 250억원 규모)에 포함하여 추진기로 했다.
- 내년부터 후계농과 귀농인은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 시 현행 연리 2% 중 1%의 이차차액을 전남도로부터 지원 받는다.
- 이차차액의 지원한도는 후계농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귀농인도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금으로 최대 지원기간은 3년이다.
- 금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주로 후계농업인과 귀농인의 농지(축사 부지 포함) 구입, 시설설치, 묘목 구입 및 기타 창업자금 등 농업시설 구입자금 및 운영자금에 지원된다.
- 한편, 전남도는 2012년부터 매년 2,000억원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1억원, 농업법인은 2억원의 한도 내에서 연 이자 3% 중 도에서 2%를 지원하여 농가는 실제적으로 1%만 부담하고 있다.
- 농업정책자금 이차차액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농업정책과(061-286-6243) 또는 도내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농지연금 '가입 기회 확대 및 연금 수령액 증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입자 설문조사, 일선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급(11~)

○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농지연금 사업은 최근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이자율 인하(4→3%),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입비 폐지, 가입연령 완화(부부 모두 65세 → 가입자만 65세이상)

○ 이에,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첫째,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 이는 농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에도 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미 월 지급 상한액(3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이중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 둘째,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다.

○ 이는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개선, 감정평가 방식을 도입하였지만 감정평가 비율을 70%로 적용함에 따라 평가방법 간의 차이가 미미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감정평가를 선택하는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

금 수령액이 종전 지원자보다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74세, 감정가격 2억원 기준, 종신휘 가입시 : 월 지급금 10만원 수준 증액

- 다만, 연금 수령액이 증가되는 만큼 향후 농지연금 채무액도 증가되기 때문에 각자의 노후생활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담보농지의 근저당 설정 및 감정평가 비용*을 농어촌공사가 먼저 대납하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저당 설정 비용(60% 감면적용) : '14년 가입자 평균 23만원

* 감정평가 수수료(하한가 적용) : '14년 가입자 평균 36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담보농지의 감정평가 비율 조정 등 법령 개정 이외의 사항은 '15.1.1부터 즉시 시행하고,

○ 소유농지 면적제한 기준 철폐 등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15년도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4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1577-7770, 061-338-5901, 5905)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91만원)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15년 기준소득금액을 91만원으로 고시했다.

○ 지난 '10년에 79만원으로 고시한 이후 '13년까지 동결되어 온 기

준소득금액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농어촌 건설'의 일환으로 '14년 8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15년에 다시 9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 '14년 기준소득금액 85만원 대비 7.1% 인상, 1인당 월 최대 40,950원 지원

- 금번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종전 85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의 52.1%인 177,979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배경

- 정부는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15년 기준 40,950원으로 '14년 38,250원보다 2,700원이 인상(7.1%)되었다.

□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 '14. 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41,740명이며, 60세 미만 312,007명, 60세 이상 29,733명이다.
- 성별로는 남성 57.4%(196,234명), 여성 42.6%(145,506명)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13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협업농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 지원이 '12년 85,635명에서 '14년 145,506명으로 70.0%나 증가하였다.
- 농어업인의 '14년 월 평균 신고소득은 1,004천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90,346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6,234원이다.

- '14년말 기준 농어업인(지역가입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08,636명, 장애연금 4,382명, 유족연금 134,552명 등 총 637,570명이다.
-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2.0%(366,056명), 여성이 28.0%(142,580명)이며, 70대 이상이 60.9%, 60대 이하가 39.1%를 차지하였다.

참고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도모
- 사업기간 : 1995~계속 ('07년 복지부 → 농식품부로 이관)
- 지원대상 : 18세이상 60세미만의 농어업인 가입자
-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법률 제11143호, 2011.12.3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기준소득금액(91만원) 이하 : 본인 보험료의 1/2 지원
 - 초과 : 월 40,950원 정액 지원
 - * 기준소득금액 : ('06) 48만원 → ('08) 62 → ('09) 73 → ('10) 79 → ('14) 85 → ('15) 91
- 사업주체 : 국민연금공단

□ 사업 추진절차

- 보험료 납입고지(공단→농어업인) ⇒ 보험료 납입(농어업인 → 공단) ⇒ 보험료지원(농식품부→공단)

◆ 2025년까지 유통되는 농산물은 모두 GAP로!

- 농림축산식품부는 웰빙·안전·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 농산물, 안심 소비자,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25년까지 유통되는 농산물을 모두 GAP로 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3.5%대인 GAP 재배면적을 ‘25년까지 50%로 확대하기 위한 GAP 확산 방안을 마련하였다.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

- GAP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음
- 다양한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가 및 농식품 시장 개방확대(FTA)에 대응하여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GAP제도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번 대책은 작년에 마련한 생산단계에서의 인증절차 간소화 위주의 대책에 이어 유통, 소비, 생산기반, 추진체계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정책지원·제도 차원의 중장기 종합 대책이다.

- 웰빙·안전·개방화 시대 **GAP 농산물 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단계 >

- ① 농업인이 생활 속에서 GAP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농작업시 손씻기, 정리정돈, 영농기록 작성 생활화 등 기본적인 위생·안전 환경 개선 운동을 전개한다.
 - 「농업 환경 개선 5개년 계획(‘15~’19)」을 수립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의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를 구성·운영하여 GAP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② GAP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단계별로 GAP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 ‘15~’17년까지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개소 조성을 통해 간이 화장실, 빈농약 수거함, GAP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사전에 지원하고, 규모화된 단지의 GAP 의무화를 위한 사전 예고 기간을 갖는다.
 - ‘17년까지의 사전 예고 후, ‘18~’24년까지는 원예전문생산단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를 의무화한다. GAP 인증 미 이행 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지원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다.
 - ‘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GAP를 의무화하여 GAP가 농업생산의 기본적인 안전·위생 조건이 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 아울러,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 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③ ‘14년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더욱 간소화하고, ‘15년 하반기 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용수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 농업인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농촌진흥청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고, 매뉴얼이 마련된 품목은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간소화한다.
- 예를 들어, 참외의 경우 농업인은 토양검사, 농약 사용, 세척수 수질관리 등 5개 내외 중요관리점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된다.
- * (개정 전) 위해요소 분석표, 중요관리점 결정표,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설정,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 설정 → (개정 후)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 설정
- 또한 이미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중금속 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서 안전성이 입증되는 필지, 여러 농가가 동일한 저수지를 용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가별로 4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토양·용수 분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유통·소비 단계 >

- ④ 유통·소비단계의 GAP 확산이 강력한 GAP 확산 동력이 되기 위해 농협, 대형유통업체의 GAP 농산물 취급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 대형유통업체, 생산자, 정부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MOU 체결을 통해 GAP 농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농산물 납품기준을 GAP로만 하도록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 기존 생산자만 인증받을 수 있었던 GAP 제도가 생산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안심 GAP 농산물 유통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 학교급식 등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한다.

- GAP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안전 급식 시범학교' 운영 ('15~'17, 300개교)을 시범적으로 GAP 사용을 확대한다.
- 국방부와 협업하여 물품적격심사기준 훈령 개정을 통해 군납 낙찰자 결정 시 GAP 농산물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 평가지표 중 GAP 활성화 분야 지표를 기존 재배면적 중심에서 '15년부터는 대량 수요처 발굴 실적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현행) GAP 재배면적(80%) + 전년대비 면적증가율(20) = 100%
 (개선) GAP 재배면적(40%) + 면적증가율(10) + 학교급식, 군납 비율 등 (30)+ GAP활성화 예산지원 등(20) = 100%

- ⑥ GAP 한글 명칭을 기존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된다.
-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 추진체계 >

- ⑦ 새롭게 GAP 교육·훈련·컨설팅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 기존에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등 기관별로 상이하게 진행되던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이 빠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GAP 교육·훈련 5개년 기본 계획('15~'19)을 수립·실천할 예정이다.
- ⑧ 농업인이 GAP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대상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16년부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GAP 컨설턴트 등록제를 시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유통조직에는 단계적으로 컨설턴트를 보유토록 할 계획이다.

□ 이번 GAP 확산 방안을 통해 농업인이 좀 더 쉽게 GAP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GAP 확산을 통해 개방화 시대 고품질·안전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7. 해외 농업정보

◆ 미국의 에탄올 재고량, 사상최대 생산 후 2개월래 최대치 기록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에탄올 재고량이 곡물원료 휘발유 첨가제의 사상최대 생산으로 인해 10월 중순이후 최대치로 상승했다고 한다.

공급물량은 12월26일 주간이 최대치며 이는 에탄올 정제업체들의 사상최대 생산치로 이로 인해 휘발유가격도 5년래 최저치로 하락하였다고 한다.

12월26일 주간 에탄올 재고량은 479,000배럴 증가한 18.09백만 배럴이며, 에탄올 수입량은 18,000배럴로 이는 10월 이후 첫 수입실적이며 5월이후 최대치이다.

한편 금주 생산량은 4주래 첫 하락으로 일일평균 생산량이 972,000배럴이었으며, 지난주 일일평균 생산량은 992,000배럴로 3주연속 사상최대 생산량이었다.

금일 에탄올 선물가격은 신년연휴를 앞두고 적은 거래물량으로 갤런당 1.64달러로 보합마감하였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15.1.2일자)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1.2(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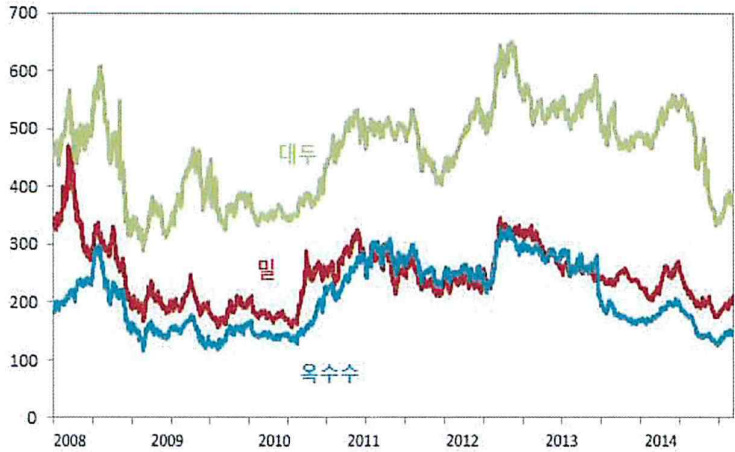
밀 · 옥수수 · 대두가격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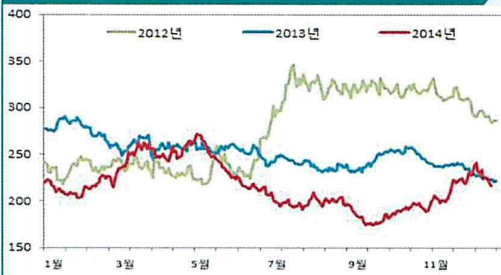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4.12.31)	전일대비	전월평균 ('14.11)	2013 평균
밀	216.64	▼2.1%	199	251
옥수수	156.29	▼2.3%	147	228
대 두	374.49	▼1.8%	379	51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옥수수:3월물, 대두:1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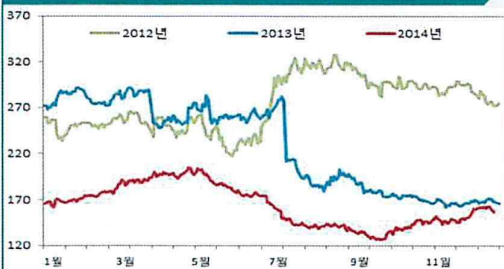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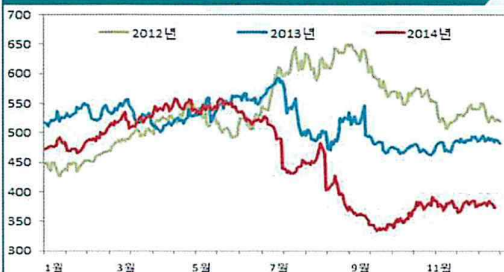
밀가격은 기술적 매도 및 연말포지션에 따른 적은거래물량으로 하락했음. 또한 미국산 밀에 대한 수요부진 및 풍부한 세계밀 공급 역시 밀가격에 하방압력을 작용했음. 그러나 미국 대평야의 한파로 인한 동면기 밀작황 차질우려는 상승폭을 다소 제한하였음. 한파는 미국 대평야의 약1/3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옥수수가격은 농가들의 옥수수현물을 통한 기술적매도세로 하락했음. 또한 남미의 이상적인 작황소식에 따른 최대수확 전망으로 미국산 옥수수가격에 추가적인 하방압력이 가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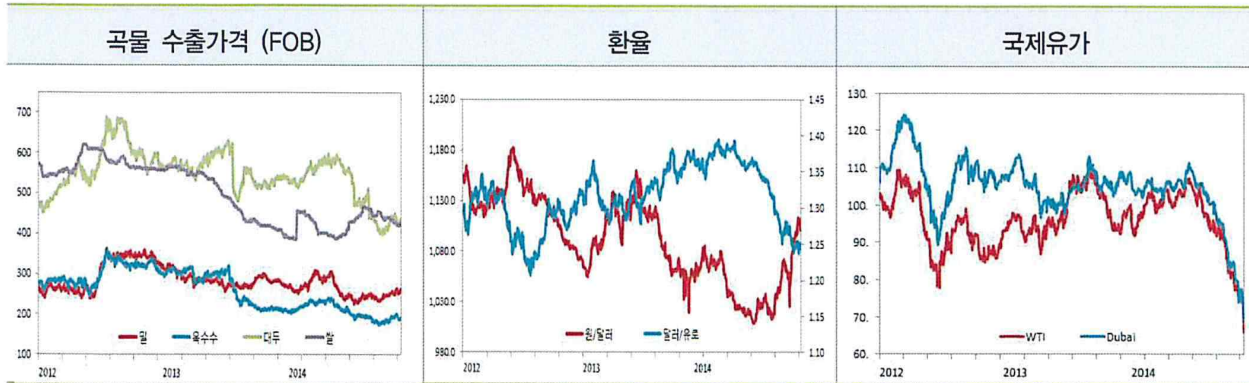
대두 선물시장 상황



대두가격도 밀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매도 및 연말포지션으로 하락했음. 또한 대체로 이상적인 남미의 작황으로 최대수확 및 세계밀 재고량 증가전망이 강화되고 있어 가격에 하방압력이 더해졌음. 한편 대두유 가격은 예상보다 높은 수출실적으로 상방압력을 받았음. 말레이시아 야자유 가격은 올 한 해 동안 풍부한 세계 식용유 공급물량으로 15% 하락했으나 12월 한 달 동안 몬순홍수에 따른 생산량감소로 급등했음.

관 련 농 품

- 곡물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옥수수 수출가격 약세의 원인은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옥수수로 인한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수출수요 부진임.
-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지표 악화, 미국 쿠싱지역 원유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했으나, 리비아 생산차질 등으로 OPEC의 12월 원유생산량이 최근 6개월래 최저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하락폭이 제한되었음.



구 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월평균('14.11)	2013 평균	2012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밀	269	▼1.8%	256	284	300
	옥수수	186	▼2.1%	192	265	300
	대두	416	▼0.7%	432	556	571
	쌀	420	—	424	488	572
환 율	원/달러	1,099	▲0.1%	1,096	1,095	1,127
	달러/유로	1,216	▲0.02%	1,25	1,33	1,29
국제유가 (US\$/barrel)	WTI	53.27	▼1.6%	75.70	97.94	94.19
	Dubai	53.60	▼0.04%	77.09	105.32	109.06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4.12.26(수출가격), '14.12.31(환율), '14.12.31(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태국의 2014년1월1일-2014년12월21일 간 백미 및 찰쌀의 수출물량은 5.27백만 톤(전년동기 대비 61%상승)임.
- 대만은 가뭄으로 인해 쌀 경작지 관개용수 제한이 확대되었음.
- USDA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수출업자는 유통년도 2014/15년 선적분 미국산 옥수수 157,500톤을 멕시코로 수출했다고 함.
- 우크라이나의 12월1일-29일 간 곡물 해상수출 물량은 3.2백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옥수수 2.4백만 톤(유럽연합,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밀 623,000톤(이집트, 방글라데시, 예멘), 보리 181,000톤(아랍 에미리트 연방, 리비아)을 포함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8. 고소득 농업사례

■ 국내 최초 ‘흑울금 발효액’제품 출시

- 울금의 쓴맛은 줄이고 커큐민 흡수율 높은 제품개발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벤처형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울금 특유의 쓴맛은 줄이고 기능성 성분(커큐민) 흡수율은 높은 ‘흑울금 발효액’을 개발한 청년사업가가 있어 화제다

곡성 불로치 울금농장 노병철(36) 대표는 울금의 쓴맛과 강한 냄새를 싫어하는 소비자를 위해 국내 최초로 ‘흑울금 발효액’ 상품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 했다.

흑울금 탄생은 친환경 퇴비로 재배하여 알이 크고 단단한 울금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울금 가루와 울금환 등의 가공 제품까지 개발했으나 특유 쓴맛 때문에 판로확대가 어려웠다.

쓴맛을 줄이고 기능성 성분인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마늘을 흑마늘로 가공시 기능성이나 맛이 좋아지는 것에 착안하여 흑울금 발효액을 개발 대중화하게 되었다

노대표가 이번에 출시한 ‘불로치 흑울금 발효액’은 300ml 2병 한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판매가격이 세트당 50,000원으로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천기누설’ TV 프로그램에 노대표 어머니가 척추골절을 울금으로 극복한 사례가 소개되면서 주문량이 크게 늘고 있다.

2007년 전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를 졸업하고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2009년 교통사고를 당한 어머니 병간호를 하게 되면서 시험준비를 접고 울금 농사에 뛰어든 노대표, 그러나 처음 시작한 울금

농사는 만만치 않았다.

특화되지 않은 곡성에서 생산된 울금의 판매가 쉽지 않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접시군에서 인력을 수급해야 했으며, 한때 분산 출하를 위해 저장했던 울금이 썩어 큰 손해를 보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농업기술원에 추진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흑울금 발효액과 같은 차별화된 가공제품 개발과 온라인 직거래 판매망 구축을 통한 광고와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또한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작목반을 통한 공동수확, 선별, 출하 시스템을 갖추었고, 울금의 품질유지와 효율적인 분산출하를 위해 약 100톤 규모의 토굴 저장고도 만들었다.

그의 노력은 소득증대로 이어졌다. 직거래를 50%까지 늘릴 수 있었고, 창업 5년만에 1억 매출을 올리는 농촌 청년 사업가로 성장했다.

노 대표는 “울금을 많이 먹는 인도와 일본은 치매, 중풍 발병률이 미국 등 선진국의 4분의 1도 채 안된다는 통계가 있다. 앞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울금 제품을 개발해 나가겠다. 또한 5년이내에 울금을 테마로 치유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9. 사업신청 안내

◆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 기간/ 장소 : '15. 1. 16 까지 /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농업법인 등)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결산서로 대체 가능)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의 법인
- 지원단가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50%)
- 사업내용 : 경영·대외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개선, 브랜드개발, 마케팅, 기술개발 등 컨설팅(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 자금으로 사용 불가)

◆ 2015년 시설원예사업 신청

- 기간/ 장소 : '15. 1. 20 까지 /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3종
 - 시설원예품질개선 : 채소·화훼 품목의 온실·공정육묘장 현대화 시설 등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지열, 공기열, 지중열, 목재펠릿 등
 - 첨단온실 : 1~3ha 규모, 30억~90억(융자)
- 지원형태
 - 시설원예품질개선,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 시설원예품질개선	20%	30%	30%	20%
-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 공기열난방시설	20%	30%	30%	20%
- 지열난방시설	60%	10%	20%	10%
- 지중열난방시설	60%	10%	20%	10%
- 폐열 재이용시설(공모사업)	60%	10%	20%	10% (지방비 대체 가능)
- 폐열 재이용시설(단독사업)	60%	10%	20%	10%
-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융자금리 :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첨단온실

신청규모		온실유형	융자금리	상환기간
일반 유형	2ha 이하	철골온실	1%	5년거치 10년상환
		비닐온실		3년거치 7년상환
	2ha 초과 ~ 3ha 이하	철골온실	2%	5년거치 10년상환
			3%	
지자체 개발유형*	3ha 초과	철골온실	2%	5년거치 10년상환

◆ 2015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 기간/장소 : '15. 1. 2 ~ '15. 1. 30 까지 /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친환경 축산물인증 및 HACCP 지정농가,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운동장 구입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기타 친환경축산에 필요한 정책사업 지원
- 대출이율 : 연리 1%
- 융자한도
 - 시설자금 : 2억원~10억원 이내,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1억원~3억원 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

◆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 기간/ 장소 : '15. 1. 31 까지 /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지원형태

구분	보조	융자	자부담	이자율
- 준전업농, 전업농	30%	50%	20%	2%
- 기업농	-	80%	20%	1%(이차보전)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자금의 지원용도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보조+융자 지원 대상면적	보조+융자 지원형태의 최대 상한액	이차보전 지원 대상면적	이차보전 지원형태의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 천원/m ²	110~1,200	312백만원	1,201~	800백만원
양돈(종돈, 인공수정포함)		660 천원/m ²	265~2,400	1,584백만원	2,401~	5,000백만원
양 계	육 계 (토종닭 포함)	360 천원/m ²	460~4,140	1,490백만원	4,141~	3,00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 천원/m ²	915~8,250	3,712백만원	8,251~	3,00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 천원/m ²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901~ (151~)	5,000백만원 (1,000백만원)
	산란계(산란중추포함)	720 천원/m ²	420~3,780	2,722백만원	3,781~	5,000백만원
오 리	육용오리	360 천원/m ²	820~7,380	2,656백만원	7,381~	3,000백만원
	종오리	450 천원/m ²	555~4995	2,248백만원	4996~	3,0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 천원/m ²	33~300	450백만원	301~	3,000백만원
낙농		260 천원/m ²	213~1,920	499백만원	1,921~	1,000백만원
양봉		180 천원/m ²	30~300	250백만원	301~	700백만원
사슴과 엘크		180 천원/m ²	150~1,350 (200~1,840)	250백만원	1,351~ (1,841~)	7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40 천원/m ²	165~1,485	324백만원	1,486~	700백만원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 2015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 신청

- 기간/장소 : '15. 1. 2 ~ '15. 2. 11 까지 /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용자한도(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 개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개소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1%
- 용자금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단,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주간

전남농업정보

16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2

Fax. 061-286-4782